외국기업, 합작 백지화 잇달아

Hoechst · Arco 이어 마루베니도 대한유화와 합작포기

최근 대한유화의 합작선인 마루베니가 지분 41.6% 157억원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92년부터 합작선의 철수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92년 럭키석유화학과 합작을 도모했던 Hoechst가 30억 상당의 지분을 럭키에 양도하고 떠났으며 Arco Chemical도 유공아코의 지분 50% 500억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철수한 바 있다.

또 일본 이토추도 대림산업과 LDPE · PP 합작사업을 검토했으나 대림측에서 합작 백지화를 선언,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유화의 주주현황(철수전)

(단위 : 100만원,%)

주 주	금 액	지 분
마루베니	157,920	41.6
Chisso	31,044	8.3
한국주주	172,220	45.5
기 타	-	4.6
합 계	360,860	100

대한유화의 경영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
매 출 액	2,460	2,554	2,769
매출총이익	118	105	-39
영업이익	111	-2	-211
경상이익	-	-1,050	-5,433
당기순이익	66	-96	-547
유동부채	1,631	2,687	4,678
고정부채	1,869	2,826	2,246
부채비율	-	307	559
자 본 금	378	378	378

이와 같은 합작선 철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90년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이후 급격한 신 · 증설로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자 더 이상의 사업참여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마루베니가 대한유화의 지분을 포기하고 철수한 이유도 대한유화가 90년 66억원의 흑자를 끝으로 91년 96억원 · 92년 547억원 등 계속 적자가 늘어나 경영난이 지속되자 이 시점에서 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유화는 80년대말까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이와같은 적자발생 요인은 기존사업 부문인 HDPE · PP 등의 합성수지 시장이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직계열화 추세에 따라 NCC 건설에 참여, 이 부분에 투자비용 확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유화는 92년부터 마루베니 측에 증자를 요청해 왔으나 마루베니는 더 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철수를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0년 4억엔을 투자해 대한유화와 합작한 마루베니는 80년대 후반 석유화학산업이 호황기를 구가하였을때 투자금액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루베니의 철수로 대한유화측은 빠른 사태수습으로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나 수년간에 걸쳐 쌓여온 적자규모를 단기간내에 해소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3/9/6>